

Korea Logistics Association a Report

# 한국물류협회소식

## ◆ 한국물류협회 정기총회 개최

- 창립 20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 준비
- 2004년도 사업계획 발표

한국물류협회(회장 : 서병륜)는 지난 2월 20일 한국물류협회 세미나실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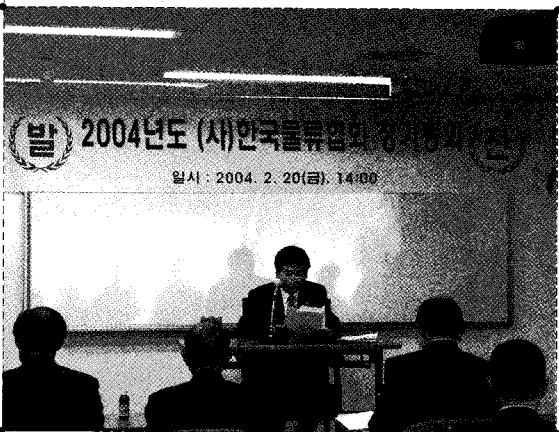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의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감사보고와 함께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부의안건이 상정됐다.

서병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협회가 2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류관계자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가일층 노력하여 한국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과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올해 협회사업은 2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러한 협회사업은 회원사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물류협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그 어느해 보다 의미있는 해로 ‘한국물류협회 20년사’ 발간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협회 위상제고 및 기능강화 노력과, 회원서비스 강화 및 대정부 정책개발과 건의, 정부위임 업무수행,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물류전문컨설팅 운영 등의 올해 주요 사업업무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신유균 한국물류협회 전무이사와 김정환 감사는 재선임 됐으며, 허진욱 에이앤디 코리아(주) 전무를 감사로, 원종진 (주)삼아통운 대표이사, 이현주 엑스로직스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물류**



## ◆ APLF 사무국 정식 출범과 함께 현판식 거행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APLF)사무국이 현판식을 갖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류인들의 교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은 지난해 10월 APLF 총회에서 서병륜 회장이 APLF 회장직에 피선되면서 1월 5일 APLF 사무국이 한국물류협회 사무실에 마련되고, 홈페이지(www.aplf.net)도 같이 오픈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서병륜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관계자 및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서병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동북아 물류 경제 중심국가로 향한 첫 걸음으로 우리나라가 회장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특히 협회 20주년을 맞이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 시점에 맞춰 APLF사무국의 오픈은 뜻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APLF사무국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자”고 소감을 피력했다.

APLF사무국은 회원 국가들에 대한 물류정보교류와 교육 및 관련활동 협력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로지스틱스 지식기반의 정보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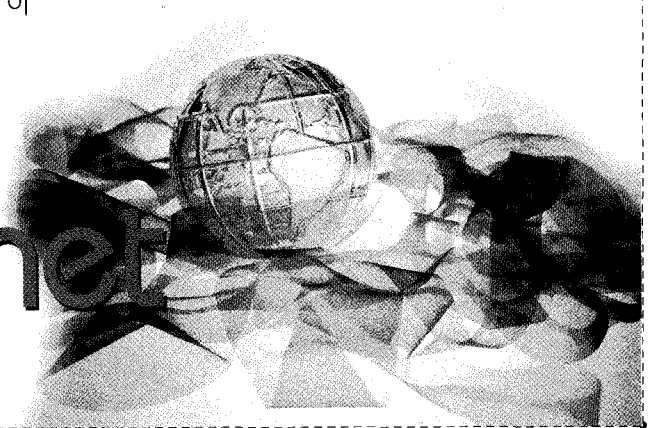
APLF 상임 사무국은 지난 APLF 총회때 상임 사무국 설치에 대해 각국의 이견이 분분했던 만큼 다소 난항이 따랐지만 차기 회장국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여 이번 한국물류협회의 APLF사무국의 개소는 회장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중국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중국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동북아 물류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APLF 사무국 국내 유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가는 또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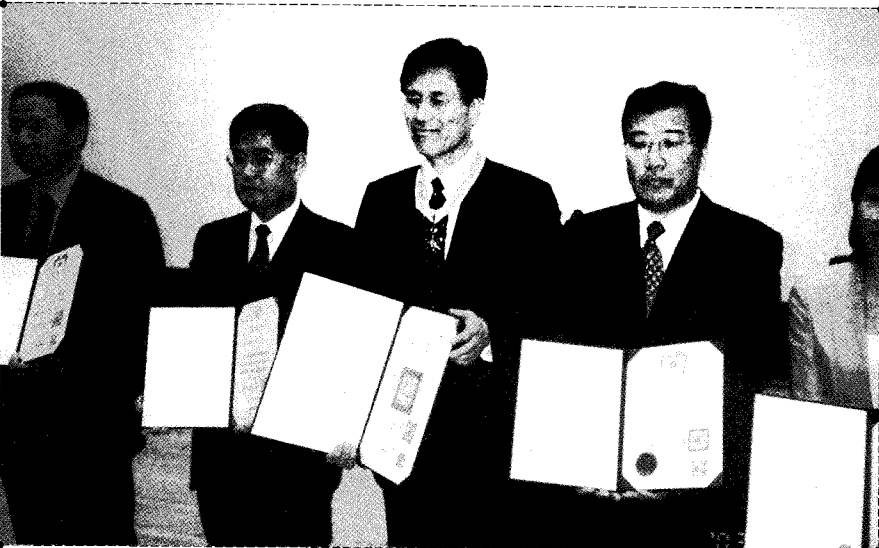
서 회장은 “APLF 회장으로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있어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회원국의 증원을 위해 직접 현지국가들을 방문하는 등 회원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회원국간의 긴밀한 유대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물류**

[www.aplf.net](http://www.aplf.net)



## ◆ 2004 대한민국 물류혁신대회 -한국물류협회 창립 20주년 행사와 공동 실시



<2003년도 물류대상 시상식 장면>

한국물류협회는 올해에도 한국 물류혁신대회를 창립 20주년 행사와 맞춰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한국물류혁신대회는 한국의 물류발전에 동반자이자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2004년 한국물류혁신대회는 『한국물류대상』, 『한국물류 혁신컨퍼런스』, 『국제물류심포지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4 물류대상 시상’은 한국물류협회 창립 20주년에 맞춰 지난해 보다 한달 정도 빠른 9월 2일 건설교통부, 한국물류협회, 매일경제신문 주관으로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한국물류대상은 1993년 제정되어 올해 12회를 맞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류부문 정부포상으로서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 등 전 업계의 물류혁신과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및 물류부문의 발전과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상이다.

한국물류대상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혁신 노력을 통해 국

가경제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기여하고 기업의 물류혁신과 가치창출에 크게 노력한 기업, 기관 및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물류의 중요성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물류혁신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유통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게 하여 이 시대의 물류부문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의 귀감으로 삼고자 실시되고 있다.

선정방법은 신청기업 및 개인에 대해 심사위원이 서류심사를 통해 현장심사업체를 2배수로 선정하고 현장심사에서는 물류혁신활동과 관련된 경영자의 리더십, 비전 및 전략, 고객과 시장중시, 정보시스템, 인적자원, 프로세스혁신, 사업성과 등을 중심으로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1, 2차 종합평가를 하여 업종별 절대점수 이상의 순위에 따라 한국물류대상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시상은 기업부문과 개인 및 단체부문을으로 나뉘며, 기업부문에는 제조업분야, 유통업분야, 수송분야, 보관·하역분야, 물류기기·장비분야, 물류서비스분야, 물류정보기술분야와 개인 및 단체 부문에는 최고경영자 분야와 유공자 분야로 구분하여 수여된다.

작년에는 LG홈쇼핑이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13개 업체가 수상한 바 있다.

시상에 응모를 원하는 업체는 한국물류혁신대회 사무국(담당 : 이민수 부장 : 02-706-0823)으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2004 물류혁신 컨퍼런스는 6월 23일(수) ~ 25일(금)까지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12개 트랙, 44개 섹션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국내외 산·학·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류이론과 혁신전략, 기업적용 사례 등을 발표하는 실사구시형의 물류혁신과 물류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테마주제는 선정중에 있으며 예전 보다 수준높은 발표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물류 심포지움은 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물류협회와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의 주관으로 9월 1일, 2일 양일간 전경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물류**

### 【2004 한국물류혁신대회 조직도】

